

WEBVTT

00:00:31.874 --> 00:00:35.174

안녕하세요?

GSEEK의 임영주입니다.

00:00:35.199 --> 00:00:37.304

요즘 맛별이하는 부부,

00:00:37.329 --> 00:00:40.898

정말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로

많습니다.

00:00:41.146 --> 00:00:44.746

그러다 보니 아이 맡길 곳이

정말 마땅치 않아서

00:00:44.771 --> 00:00:48.457

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의 아우성이

곳곳에서 들립니다.

00:00:48.687 --> 00:00:54.570

이왕 아이 맡기는 거 정말

잘 봐줄 수 있는 분이 낫겠다 싶어서

00:00:54.595 --> 00:01:01.075

선택한 분이 바로 친정어머니,

시아머니, 시아버지 이러잖아요.

00:01:01.100 --> 00:01:02.656

그런데 사실 조부모님 입장에서

00:01:02.681 --> 00:01:05.683

선택 당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

참 많을 텐데

00:01:05.708 --> 00:01:08.378

또 어떤 조부모님은 그래,

내가 우리 아이 키울 때

00:01:08.403 --> 00:01:13.359

제대로 못 했으니까

우리 손주 잘 맡아서 키우자 하는

00:01:13.384 --> 00:01:15.664

소수의 분들도 계시기는 하세요.

00:01:15.689 --> 00:01:21.582

어쨌든 조부모님들께 아이를 맡기는

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.

00:01:21.712 --> 00:01:26.210

오늘의 주제는

일명 황혼육아라고 하는데요.

00:01:26.235 --> 00:01:31.035

사실 말이 황혼육아지

요즘 조부모님들 정말 젊습니다.

00:01:31.265 --> 00:01:33.066

부부끼리 이제 아이들 다 키우고

00:01:33.091 --> 00:01:36.308

우리끼리 재미있게 놀자,
재미있게 지내보자.

00:01:36.333 --> 00:01:43.007

이러던 터에 손주를 턱 맡아서
지금 손주 육아하느라고 참 애씁니다.

00:01:43.154 --> 00:01:46.675

조부모 육아라고도 하고
손주 육아라고도 하는데

00:01:46.757 --> 00:01:50.057

할머니, 할아버지들께서
손주를 양육하는 것

00:01:50.441 --> 00:01:53.741

정말 눈물겹게 힘든 일이거든요.

00:01:53.766 --> 00:01:57.480

사랑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
바로 손주 육아인데요.

00:01:57.505 --> 00:02:02.109

실제 황혼육아를 경험한
조부모님의 상당수가

00:02:02.134 --> 00:02:05.175

강도 높은 육체적 노동에서 오는

00:02:05.200 --> 00:02:09.475

질병,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으로
조사가 되기도 했습니다.

00:02:09.500 --> 00:02:12.421

손목터널증후군은 예사죠.

00:02:12.694 --> 00:02:17.825

그러다 보니까 조부모님은
조부모님대로 아이 키우느라고 힘들고

00:02:17.850 --> 00:02:22.578

애본공 새본공이고 또 아이를 맡긴
부모님 입장에서는

00:02:22.739 --> 00:02:27.475

그래도 손자, 손녀인데
더 잘 봐주시지 하는 또 욕심에서

00:02:27.500 --> 00:02:30.117

갈등이 커지기도 하는데요.

00:02:30.461 --> 00:02:35.787

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조부모님의 입장을
충분히 이해해 주셔야 하는데요.

00:02:35.812 --> 00:02:39.112

조부모님 입장에서 한번
잠깐만 생각해 봐도

00:02:39.137 --> 00:02:42.437

이미 너희 잘 키워서
이렇게 성장시켰는데

00:02:42.462 --> 00:02:44.863
또 아이 뒷바라지해야 하는 거냐.

00:02:44.888 --> 00:02:47.949
그다음 너희 키울 때는
그래도 우리가 젊었지.

00:02:47.974 --> 00:02:53.671
이제는 몸도 안 따라준다라고 하면서
그래도 정말 잘 키워주시는 거거든요.

00:02:53.696 --> 00:02:57.500
단, 부모님의 마음에
차지 않는 거예요.

00:02:57.525 --> 00:03:00.195
그래서 오늘 조부모님께

00:03:00.220 --> 00:03:05.136
아이를 맡기는 부모님들한테 드리는
이야기를 꼭꼭 집어서

00:03:05.161 --> 00:03:07.480
이야기하고자 합니다.

00:03:07.667 --> 00:03:12.109
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육아는
균형이 있어야 해요.

00:03:12.134 --> 00:03:16.054
몇 가지 방법 가운데
우리 객관적으로

00:03:16.079 --> 00:03:20.175
제가 황혼육아를 잘하는 비법
알려드릴게요.

00:03:20.433 --> 00:03:25.195
보통 우리 근무하기 전에
근로계약서 쓰잖아요.

00:03:25.220 --> 00:03:30.033
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한다.
월급은 얼마큼 받는다.

00:03:30.058 --> 00:03:32.636
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쓰듯이

00:03:32.661 --> 00:03:35.961
부모님과도 근로계약서를
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.

00:03:36.162 --> 00:03:37.421
이거는 왜 중요하냐 하면

00:03:37.446 --> 00:03:40.746

육아의 범위를 정확하게
하기 위한 건데요.

00:03:40.868 --> 00:03:44.168
아이를 어머니 집에 맡길 것인가,

00:03:44.280 --> 00:03:47.070
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
아이를 볼 것인가

00:03:47.095 --> 00:03:49.550
육아 장소도 정해야 하고요.

00:03:49.575 --> 00:03:52.792
몇 시부터 몇 시까지에 대한
시간도 정해야 하고요.

00:03:52.817 --> 00:03:58.906
또 중요하게 빠뜨리지 않아야 할 것이
양육비를 어떻게 채길 것인가입니다.

00:03:59.187 --> 00:04:03.027
월급으로 당연히 드려야 해요,
생각날 때마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.

00:04:03.052 --> 00:04:07.871
그다음 제가 은행에서 찾아서
쓸 수 있도록

00:04:07.896 --> 00:04:10.156
계좌에 이체하라는
애기를 했었는데요.

00:04:10.181 --> 00:04:12.246
요즘 조금 바뀌었습니다.

00:04:12.552 --> 00:04:15.722
어린이를 볼수록
은행 갈 시간도 없다는

00:04:15.747 --> 00:04:18.691
조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서인데요.

00:04:18.931 --> 00:04:21.933
봉투에 넣어서 드리든
계좌이체를 하든

00:04:21.958 --> 00:04:25.683
조부모님께서 편하게 쓸 수 있도록
하시는 건데

00:04:25.955 --> 00:04:28.320
특히나 양육비는 돈이잖아요.

00:04:28.345 --> 00:04:30.585
가족끼리 돈 이야기한다는 게

00:04:30.610 --> 00:04:33.613
아직은 우리 정서상
굉장히 쉽지가 않은데

00:04:33.638 --> 00:04:37.207
그래서 가족이라서 더 처음부터

00:04:37.232 --> 00:04:40.532
이 부분을 명확하게
잘 해놓아야 합니다.

00:04:40.982 --> 00:04:44.282
그래야 갈등의 소지를
줄일 수 있고요.

00:04:44.470 --> 00:04:47.207
그래야 우리 아이를
잘 키울 수 있습니다.

00:04:47.232 --> 00:04:51.425
또 황혼육아에서 가장 많이
일어나는 문제는

00:04:51.450 --> 00:04:53.515
아이들이 겪는 혼란인데요.

00:04:53.540 --> 00:04:56.992
지금까지 저도 칼럼도 많이 쓰고
인터뷰도 하고 방송에도 출연해서

00:04:57.017 --> 00:05:01.210
늘 부모님과 조부님의 갈등에 대해서
강조를 했는데

00:05:01.235 --> 00:05:04.824
가장 중요한 인물이 빠졌습니다.
누구죠?

00:05:04.849 --> 00:05:07.949
바로 중심 인물인 손주입니다.

00:05:07.974 --> 00:05:11.972
아이가 잘 커야 하는데
그래서 황혼육아도 하는 거고

00:05:11.997 --> 00:05:14.042
부모님께 말기는 거잖아요.

00:05:14.067 --> 00:05:16.562
일관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,

00:05:16.587 --> 00:05:19.941
아이를 사이에 두고 부모님과
조부모님께서

00:05:19.966 --> 00:05:24.921
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관한 것을
제가 강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.

00:05:24.946 --> 00:05:28.339
할머니가 하시는 말씀과
엄마가 하는 말이 다르면

00:05:28.364 --> 00:05:30.214
아이는 혼란스럽습니다.

00:05:30.521 --> 00:05:33.457

예를 들어 할머니는
괜찮아, 먹어도 돼.

00:05:33.482 --> 00:05:36.562

이거 하나 먹어도 되지,
뭘 그러냐라고 하는 반면에

00:05:36.587 --> 00:05:41.269

엄마는 안 돼라고 굉장히
엄격하게 얘기를 한다면

00:05:41.294 --> 00:05:45.625

아이는 할머니하고 엄마 사이에서
말 그대로 눈치꾸러기가 되거든요.

00:05:45.650 --> 00:05:48.496

그러면 아이에게
일관성을 주기 위해서는

00:05:48.521 --> 00:05:50.761

어떻게 해야 할까,
혼란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

00:05:50.786 --> 00:05:54.453

어떻게 해야 할까라고
저에게 묻는다면

00:05:54.478 --> 00:05:58.300

엄마와 할머니께서
협의를 하셔야 하는데요.

00:05:58.500 --> 00:06:00.781

아이가 없는 곳에서 해야 합니다.

00:06:00.806 --> 00:06:05.234

우리가 조율하는 과정에서도
자칫하면 큰소리가 날 수도 있잖아요.

00:06:05.259 --> 00:06:09.492

그러면 아이는 무조건 엄마, 아빠
혹은 할머니, 할아버지

00:06:09.517 --> 00:06:11.933

혹은 엄마와 할머니 싸워,
이렇게 돼요.

00:06:11.958 --> 00:06:17.070

어른들이 큰소리 내는 것은
아이들은 싸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

00:06:17.095 --> 00:06:20.395

아이는 굉장히 불안감을
느끼게 됩니다.

00:06:21.090 --> 00:06:24.390

이렇게 협의한 것은 할머니께서도
일관성 있게

00:06:24.415 --> 00:06:28.973

손주에게 적용시켜주면 되는데
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.

00:06:28.998 --> 00:06:34.030

아이가 있을 때 할머니께
아예 부탁하는 형식도 좋아요.

00:06:34.055 --> 00:06:37.773

엄마, 우리 누구 밥 먹기 전에는

00:06:37.798 --> 00:06:41.098

절대 사탕 먹지 않기로
약속을 했거든요.

00:06:41.123 --> 00:06:46.825

그러니까 엄마는 사탕 달라고 해도
주지 마세요라고 합니다.

00:06:46.850 --> 00:06:49.062

그러면 이걸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

00:06:49.087 --> 00:06:52.812

할머니가 악역을 하지 않아도
된다는 거예요.

00:06:53.121 --> 00:06:56.210

엄마가 너 사탕 주지
말랬어라고가 아니라

00:06:56.235 --> 00:07:02.519

엄마가 할머니 앞에서 사탕을
못 먹게 하는 것을 공론화했기 때문에

00:07:02.544 --> 00:07:06.875

할머니가 어떤 말을 해도
할머니는 악역을 한 게 아닙니다.

00:07:06.900 --> 00:07:12.875

그다음 습관 목록을 같이 만드셔서
할머니가 그것을 붙여 놓고

00:07:12.900 --> 00:07:14.238

자, 여기 봐라.

00:07:14.263 --> 00:07:18.710

엄마랑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너는
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 하면서

00:07:18.735 --> 00:07:23.847

보여주고 이야기하는 것도
굉장히 일관성을 실천하는 데

00:07:23.872 --> 00:07:25.273

도움이 되겠습니다.

00:07:25.717 --> 00:07:29.785

다음에 아이가 잘못했을 때
어떻게 훈육할까?

00:07:29.965 --> 00:07:33.964

이게 굉장히 조부모 육아에서는

중요한 부분인데요.

00:07:34.078 --> 00:07:37.070

엄마가 아이 훈육하는 것도
쉽지가 않은데

00:07:37.214 --> 00:07:41.210

하물며 우리 아이의 아이,
즉 손주를 훈육할 때

00:07:41.235 --> 00:07:44.394

할머니, 할아버지들께서
정말 힘듭니다.

00:07:44.419 --> 00:07:46.757

그리고 특히 할머니, 할아버지
계실 때

00:07:46.782 --> 00:07:49.746

엄마가 아이에게 훈육할 때도
힘들거든요.

00:07:49.771 --> 00:07:52.695

이럴 때 두 분께서 하셔야 할 일은

00:07:52.720 --> 00:07:55.332

엄마가 만약에 아이에게
훈육을 할 때는

00:07:55.357 --> 00:07:59.296

할머니, 할아버지께서는
썩 자리를 피해 주세요.

00:07:59.321 --> 00:08:02.500

왜냐하면 할머니, 할아버지가
아이 편 안 들어주면

00:08:02.525 --> 00:08:07.656

아이는 할머니, 할아버지가 서운해요.
나 혼났는데 내 편도 안 들어주고.

00:08:07.681 --> 00:08:10.722

역시 할머니, 할아버지가 아이에게
훈육을 할 때는

00:08:10.747 --> 00:08:13.613

엄마, 아빠가 자리를
피해 주시면 됩니다.

00:08:13.638 --> 00:08:18.691

그러면 아이가 혼란도 없고
서운함도 안 느끼게 되거든요.

00:08:18.716 --> 00:08:23.066

부모님께서서는 부모님이 하셔야 할
역할을 하셔야

00:08:23.091 --> 00:08:27.910

우리 황혼육아의
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
00:08:28.110 --> 00:08:30.917
조부모님께 아이를 맡긴
부모님의 5계명

00:08:30.942 --> 00:08:33.457
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.

00:08:33.757 --> 00:08:39.589
첫 번째, 칭찬은 온 가족 앞에서

00:08:39.614 --> 00:08:43.535
어머님, 아버님 정말 최고예요.

00:08:43.769 --> 00:08:48.671
부탁하는 말은 엄마와 나
둘이 있을 때 정중하게.

00:08:48.696 --> 00:08:51.699
엄마, 진짜 잘해 주시는데요.

00:08:51.724 --> 00:08:55.566
이런 부분은 조금
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?

00:08:55.591 --> 00:09:00.781
이렇게 조부모님의 위상을
높여주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
00:09:01.361 --> 00:09:08.757
두 번째, 아이가 듣는 앞에서
할머니께 아이가 잘못하면

00:09:08.782 --> 00:09:13.007
저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
이야기를 해서

00:09:13.320 --> 00:09:16.475
우리 아이의 어떤
고칠 행동에 대해서

00:09:16.500 --> 00:09:20.078
부모님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
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.

00:09:20.103 --> 00:09:24.550
그렇지 않으면 아이 입장에서는
할머니가 일렸어, 할머니 나빠.

00:09:24.575 --> 00:09:26.406
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.

00:09:26.431 --> 00:09:29.667
아예 부모님이 계실 때,
아이가 있을 때

00:09:29.692 --> 00:09:35.000
어머님, 만약에 우리 누군가
고쳐야 할 행동이 있으면

00:09:35.025 --> 00:09:39.779
저한테 얘기해 주세요라고

아이도 듣게 얘기를 해 주시면

00:09:39.804 --> 00:09:42.988
훈육하기에도 또 아이 입장에서

00:09:43.013 --> 00:09:47.324
할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
갖지 않게 됩니다.

00:09:47.552 --> 00:09:52.187
세 번째는 현재형으로
의견을 물어보듯이

00:09:52.212 --> 00:09:54.960
조부모님께 여쭙보는 겁니다.

00:09:55.758 --> 00:09:59.062
어머님, 저기 그렇게
먹여주지 마세요.

00:09:59.087 --> 00:10:01.074
그러면 자꾸 애 버릇 나빠져요.

00:10:01.099 --> 00:10:05.039
이렇게 가르치듯이 아니라
어머니께 여쭙보듯이 하는 겁니다.

00:10:05.064 --> 00:10:08.789
어머님, 저기 혼자 먹게 둘까요?

00:10:08.814 --> 00:10:11.757
그러면 어머니가 사실
결정한 거잖아요.

00:10:11.782 --> 00:10:16.074
어머님, 그렇게 하시면 애가 자꾸만
자립심이 떨어져요라고 하면

00:10:16.099 --> 00:10:17.675
가르치는 것 같았는데요.

00:10:17.700 --> 00:10:20.800
어머님, 혼자 먹게 두면 어떨까요?

00:10:20.825 --> 00:10:24.589
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라고 한다면
어머, 애 그게 좋겠다.

00:10:24.614 --> 00:10:27.871
그래, 이제 혼자 먹게
좀 놔줘야겠다라고 해서

00:10:27.896 --> 00:10:32.871
어머니께서 결정해서 하는 일이 되는
그런 형식으로 말씀하신다면

00:10:32.896 --> 00:10:38.847
존중하면서 우리 아이에게도 어른들은
저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라는 것도

00:10:38.872 --> 00:10:40.585

가르칠 수 있겠죠.

00:10:40.610 --> 00:10:45.039

할머니, 할아버지가 하시는
황혼육아는

00:10:45.064 --> 00:10:48.945

우리 아이를 정서적으로
또한 인지적으로도

00:10:48.970 --> 00:10:53.105

굉장히 훌륭하게 키운다는
많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

00:10:53.276 --> 00:10:59.296

조부모 육아, 황혼육아는 힘들지만
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.

00:10:59.321 --> 00:11:01.621

할머니, 할아버지와 접하면서

00:11:01.646 --> 00:11:04.946

아이가 정서적으로
좋은 영향을 받아서

00:11:04.971 --> 00:11:08.820

마음이 튼튼한 아이로도
자랄 수 있습니다.

00:11:08.845 --> 00:11:12.145

지금까지 GSEEK의 임영주였습니다.